

新年辭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친애하는 국내외 종인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戊子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종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福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사상최악의 서해안 유조선 기름유출사고는 우리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으며 서해안지역에 주거하시는 우리 구문의 일가 여러분도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자원봉사자 중 우리 구문의 종인들도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방제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지역주민들과 일가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대종회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종회의 宗事に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시고 힘을 모아주신 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대종회에서는 능주에 소재한 시조공(始祖公)의 재실인 영모재(永慕齋)의 지붕기와가 너무나 낡아서 점토기와인 전통한식기와로 전면 교체하여 새롭게 말끔하게 단장하였으며, 고창에 소재한 3세조(世祖)의 재실인 중광재(重光齋)의 관리사에 대한 차양(遮陽)공사도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광역시종회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 종회에

서 많은 종인들이 성금을 대종회로 보내 주셨습니다. 귀한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선사업과 대종회의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종인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조선후기 영·정조(英·正祖)대를 걸쳐 근 30년 동안 등단대장(登壇大將)으로 무종(武宗)으로 불리며 국가에 충성을 다한 훈련대장(訓練大將)인 구선복 훈장공(具善復 訓將公)에 대한 「옥사·사료근거」를 발간하게 되어 훈장공의 위상을 재조명하며 새롭게 정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6년도에 발간된 「충렬공 구치관 전기」에 이어 또 하나의 학술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대종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선조들에 대하여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제반 자료를 발굴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종인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 해 많은 관심과 협조로 성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는 국내외 종인 여러분에게 조상님의 은총과 신의 가호가 함께하는 가운데 가정과 일터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008년 원단

능성구씨대종회장 具旺會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능성구씨 종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福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綾城具氏大宗會 ※

- 고문
- 具然植 具然春 具庚書 具英書 具昌書
具璟會 具滋明 具文謨
- 총재
- 具滋暻
- 회장
- 具旺會
- 수석부회장
- 具判龍(滋)
- 상임부회장
- 具滋璿
- 이사
- 具滋正 具滋信 具和盛(書) 具教雲 具滋寬 具達會 具禧會
具連洙(謨) 具性會 具然道 具点書 具大瑛(書) 具峻會
具一會 具興會 具翊會 具完會 具先會 具昌會 具浣(滋)
具滋珀 具滋東 具鍾道(本) 具利謨 具弘壹(謨) 具成謨
- 감사
- 具章會 具俊會
- 총무
- 具教原
- 편집인
- 具光會

※ 綾城具氏市·道宗會 ※

- 서울특별시종회
- 회장 具滋正
- 부산광역시종회
- 회장 具滋信
- 인천지구종회
- 회장 具和盛(書)
- 경기도종회
- 회장 具教雲
- 충북도종회
- 회장 具滋寬
- 대전충남종회
- 회장 具達會
- 전북도종회
- 회장 具禧會
- 광주전남종회
- 회장 具連洙(謨)
- 경남종회
- 회장 具性會

※ 綾城具氏派宗會 ※

- 判事派宗會
- 회장 具明會
- 侍郎派宗會
- 회장 具平祐(會)
- 左政丞派宗會
- 종인일동
- 判安東派宗會
- 회장 具翊會
- 都元帥派宗會
- 회장 具判龍(滋)
- 郎將派宗會
- 회장 具滋弘
- 監務派宗會
- 회장 具滋元
- 叅判派宗會
- 회장 具大瑛(書)
- 文川郡事派宗會
- 회장 具然聖

대중회 임원 新年 交禮會



대중회는 지난 1월 7일 오전 11시 대중회관 회의실에서 자경(滋淸) 총재를 비롯하여 왕회(旺會) 회장, 자선(滋璿) 상임부회장, 자정(滋正) 서울특별시종회장, 자신(滋信) 부산광역시종회장, 자관(滋寬) 충북도종회장, 달회(達會) 대전충남종회장, 회회(禧會) 전북도종회장, 성회(性會) 경남종회장 등 2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신년 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임원 서로간에 덕담을 나누면서 신년 인사를 나눈 후 자경 총재는 인사말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바란

다고 말하고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족보(임오보)를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왕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대중회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협조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선 상임부회장이 시제일자 변경에 대해 각시도종회로부터 접수한 애로사항을 얘기하자 임원들은 일단 금년시제는 변경된 대로 시행해 보고 불편한 문

제가 있을 시에는 내년 이사회에서 의논기로 하였다. 한편 매년 봄에 시도종회로부터 추천되어 선발된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던 장학금은 금년부터는 여름철 방학기간(7-8월 중 2박 3일 예정)을 이용하여 선조성묘참배순례행사 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만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동소문동에 위치한 음식점(강릉집)으로 자리를 옮겨 송조 애증으로 건배 제창을 한 다음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오찬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폐회하였다.

자경총재 부인 하정임(河正任)여사 별세 자상한 내조 66년, 집안 화목 묵묵히 다져



자경(滋淸)총재의 부인되시는 하정임 여사가 숙환으로 85세를 일기로 지난 1월 9일 별세하였다. 고인은 1924년 경남 진양군 대곡면 단목리에서 하순봉-정희남 씨 사이에 3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나 만 18세에 구자경 총재와 진주에서 결혼했다. 장손의 혼사에 깊은 관심을 가진 구자경 총재의 조부모가 선비 집안의 장녀이자 한문에 뛰어난 소양을 갖춘 하 여사를 종부(宗婦)로 삼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고인은 자경 총재와 66년간을 해로해 오면서 평생 남편에게는 조용한 내조자로서, 자식들에게는 인자하고 자상한 어머니로서, LG가문의 종부로서 헌신해왔다. 고인은 자경 총재와의 슬하에 4남 2녀(本茂 LG그룹 회장·本綾 회성그룹 회장·本俊 LG상사 부회장·本式 회성전자 사장·萱美·美貞)를 두었으며 자녀들이 형제간의 우애와 근검절약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우는 데 힘썼고, 시부모와 5명의 시동생을 보살폈으며, 묵묵히 종부의 도리를 다하고 내조자로서의 덕목을 지니신 분으로 음식에서부터 의복에 이르기까지 자경 총재의 마음을 읽으시는 든든하고 편안한 반려자였다. 고인은 제사를 한 번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제수용품과 제례음식을 일일이 준비한 것으로 유명하고 시가(媳家)의 유교적 가풍 속에서 자신

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대가족의 집안 화목에 힘썼고, 남편이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하는 고비마다 이심전심으로 힘과 용기를 불어넣으며 LG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보이지 않는 기여를 해왔다. 이를 두고 2001년 자경 총재의 회수(77회 생일)연에서 자경 총재는 “지난 60년 동안 일생의 반려자로서 묵묵히 내조해 준 집사람에게 정말 고맙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해 각별한 부부애를 보인 바 있다. 장남인 본무(本茂) LG그룹 회장은 평소 “엄격한 가르침과 따뜻한 사랑으로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부모의 모습을 엄부자모(嚴父慈母)라 하는데, 바로 아버님 어머니께서 그런 가정교육으로 우리 6남매를 길러주셨다”고 말해왔다. 지난 2002년 자경 총재와 고인의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회혼례(回婚禮)에서 본무 회장은 두 분께서 백년을 해로하시는 부부상 이야말로 평생 간직하며 본받아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존경의 뜻을 표했다. 문상기간 중 재계, 금융계, 학계, 언론계, 정계 등의 인사들이 줄을 이었고 구문의 많은 종인들도 빈소를 찾았다. 유해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에 있는 납골묘에 안치되었으며 대중회에서는 자선(滋璿) 상임부회장이 장례절차를 집례(執禮)하였다.

서울시종회 송년회 개최



서울시종회(회장 具滋正)는 지난 12월 12일(수요일) 오후 7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음식점(신동양대반점)에서 창서(昌書), 돈회(惇會), 자선(滋善) 고문을 비롯해서 자정 회장과 부회장, 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자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시종회를 위해

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신년도에는 보다 활기차게 종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당부하였다. 이어 제6·7대 서울시종회장을 역임한 자선(滋善) 고문이 새해에는 서울시 종인 모두에게 건강과 만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한다는 덕담이 있었다. 광회(光會) 총무가 참석자 전원을 일일이 소개한 다음, 자정 회장의 건배로 시작된 연회는 시종일관 종인들과 정담을 나누는 가운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시종회에서는 2008년도 달력을 제작하여 서울시내 각 구종회(區宗會)를 통해서 종인들에게 배포하였다.

태안반도 살리기에 종인들도 앞장

“태안반도를 살리자.”

지난해 12월 초에 발생한 사상최악의 서해안 태안지역 해상 기름유출사고로 절망의 바다가 되어버린 태안을 살리기 위해 개인과 시민단체 기업체 등에서 자원봉사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문의 종인들도 종회별로 삼삼오오 또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에 나서 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피해 복구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사고를 당한 태안지역에는 구문의 일가들도 상당수가 피해를 입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종인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는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차례를 모시는 절차

조상님의 은덕을 추모하는 일은 그 후손된 사람들의 당연한 보답이요 도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문의 많은 일가 종친께서 설날 아침에 차례(茶禮)를 모시는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차례에 〈지방(紙榜)을 쓰는 방법〉을 비롯하여 〈제수(祭需)를 진설(陳設)하는 방법〉, 〈차례(茶禮)를 모시는 순서〉 등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조하시어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을 쓰는 방법

지방을 쓸 때는 반드시 몸을 청결하게 하고 설날 아침에 정성을 들여 흰백지에 붓으로 쓴다.

- ① 지방의 규격은 폭 6cm, 길이 22cm 정도가 좋으며 주로 한지(창호지 종류)를 사용한다.
- ② 고위(考位-돌아가신 아버지, 조부 등)를 왼편에 쓰고, 비위(妣位-돌아가신 어머니, 조모 등)를 오른편에 쓴다. 한 분만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만 중앙에 쓴다.
- ③ 아내의 지방에는 현(顯)자를 고(故)자로 고쳐 쓰고, 동생 이하 비유(卑幼)인 경우에는 망(亡)자로 고쳐 쓴다.
- ④ 생전에 벼슬을 했을 경우 학생(學生) 대신 벼슬의 직급인 〈이사관〉 혹은 〈도지사〉 등의 직위를 쓴다.
- ⑤ 지방의 예시

顯	현	顯	현
祖	조	祖	조
考	고	妣	비
學	학	孺	유
生	생	人	인
府	부	南	남
君	군	陽	양
		洪	홍
		氏	씨
神	신	神	신
位	위	位	위

〈조 부모〉

顯	현	顯	현
考	고	妣	비
學	학	孺	유
生	생	人	인
府	부	城	파
君	군	平	평
		尹	윤
		氏	씨
神	신	神	신
位	위	位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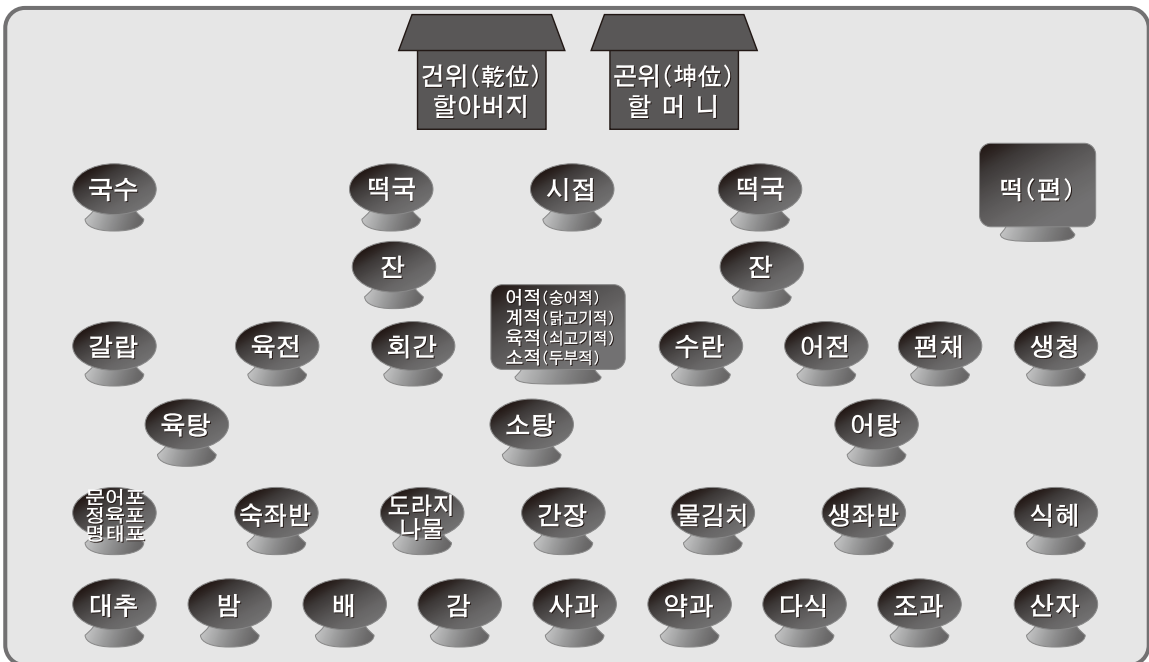
〈부 모〉

顯	현
辟	벽
學	학
生	생
府	부
君	군
神	신
位	위

〈남 편〉

故	고
室	실
孺	유
人	인
仁	인
同	동
張	장
氏	씨
神	신
位	위

〈아 내〉



2. 제수를 진설하는 방법

① 과(果=과일)줄

조율이시(棗栗梨柿)라 하여 진설자의 왼쪽부터 대추(조棗), 밤(율栗), 배(이梨), 감(시柿), 사과 등의 순서로 진설하고 다음에 조과(造菓)는 다식, 약과, 산자 등을 쓴다.

② 포채(脯菜=포 · 나물)줄

좌포우혜(左脯右醢)라 하여 포(脯)는 북어포(北魚脯=명태포) · 정육포(正肉脯=쇠고기포) · 문어포(文魚胞) 등을 왼쪽에 식혜(食醢)를 오른쪽에 진설하며 그 가운데 생동숙서(生東熟西)라 하여 침채(沈菜=물김치)와 생좌반(生佐飯=익히지 않은 조기)은 동쪽(진설자의 오른쪽)에 숙채(熟菜=숙주나물, 무나물, 도라지나물)와 숙좌반(熟佐飯=익힌조기)은 서쪽(진설자의 왼쪽)에 진설하고 간장은 그 가운데 놓는다.

③ 탕(湯)줄

어동육서(魚東肉西)라 하여 어탕(魚湯=생선탕)과 홍

합탕(紅蛤湯)은 동쪽(진설자의 오른쪽)에 육탕(肉湯=쇠고기탕)과 계탕(鷄湯=닭고기탕)은 서쪽(진설자의 왼쪽)에 진설하고 소탕(素湯=두부탕)은 가운데 놓는다. 이 중에 3탕(湯)만 써도 무방하다.

④ 적(炙=구운 고기) · 전(煎=부침개)줄

어적(魚炙=송어적)과 어전(漁煎)은 동쪽(진설자의 오른쪽)에 육적(肉炙=쇠고기적)과 육전(肉煎)은 서쪽(진설자의 왼쪽)에 진설하고 소적(素炙=두부적)은 가운데 놓는다. 이 때 두동미서(頭東尾西)라 하여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향하게 놓는다. 또한 회간(膾肝=간 · 천엽)과 수란(水卵=계란을 깨뜨려 그대로 반숙시킨 것)을 놓는다.

⑤ 떡국줄

시저(匙箸=숟가락 · 젓가락)는 양위(兩位)일 때는 중앙에 단위(單位) 또는 삼위(三位)일 때는 맨 왼쪽에 놓고 술잔은 떡국 앞에 놓는다. 면(麵=국수)은 왼쪽에 편(飰=떡)은 오른쪽에 놓는다.

3. 차례를 모시는 순서

① 강신(降神) : 【강신(降神)이란 신위(神位)께서 강림하시어 제수(祭需)를 흥향하시라는 의식이다.】

제관(祭官) 이하 모든 참례자(參禮者)가 차례로 선 다음 초헌관(初獻官)은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분향(焚香)하고 집사자(執事者)가 술을 술잔에 따라 헌관(獻官)에게 주면 헌관(獻官)은 그 술잔을 받아서 모사 그릇에 세 번 나누어 붓고 빈 잔을 집사자(執事者)에게 돌려보낸다.

② 참신(參神) : 【참신(參神)이란 신(神)을 뵈는 의식이다. 신주(神主)인 경우에는 참신(參神)을 먼저 하고, 지방(紙榜)인 경우에는 강신(降神)을 먼저 한다.】

제관(祭官) 이하 모든 참례자(參禮者)는 함께 두 번 절한다. 여자는 네 번 절한다.

③ 초헌(初獻) : 【초헌(初獻)이란 제주(祭主)가 첫 번째로 술을 올리는 의식이다.】

초헌관(初獻官)은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집사자(執事者)가 주는 술잔을 받고 집사자(執事者)가 술을 따르면 술잔을 양손으로 받들어 집사자(執事者)에게 주고 집사자(執事者)는 술잔을 받아 제상(祭床)에 올린다. 적(炙)을 올리고 떡국 뚜껑을 연 다음 헌관(獻官)은 두 번 절한다.

④ 유식(侑食) : 【유식(侑食)이란 신위(神位)께 제수(祭需)를 권하는 의식이다.】

헌관(獻官)은 술잔에 술을 따라 첨작(添酌)하고 집사

(執事)는 숟가락을 떡국에 올려 놓고 젓가락을 세워 가지런히 하고 접시에 놓은 다음 헌관(獻官)은 두 번, 주부(主婦)는 네 번 절한다.

⑤ 묵념(默念)

제관(祭官) 이하 모두 묵념한다. 묵념은 약 구시지경(九匙之頃=밥을 아홉 숟가락 떠먹는 사이) 동안 한다.

⑥ 철시복반(撤匙復飯) : 【철시복반(撤匙復飯)이란 숟가락을 걷고 떡국 뚜껑을 닫는 의식이다.】

잠시 기다렸다가 숟가락을 거두어 시접(匙櫟)에 놓고 떡국 뚜껑을 닫는다.

⑦ 사신(辭神) : 【사신(辭神)이란 신위(神位)께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올리는 의식이다.】

헌관(獻官) 이하 모두 두 번 절하고 여자는 네 번 절한다. 신위(神位)는 사당(祠堂)으로 옮겨 모시고 지방(紙榜)을 불사른다.

⑧ 철상(撤床) : 【철상(撤床)이란 제상(祭床)의 제물(祭物)을 치우는 의식이다.】

제물(祭物)은 뒤에서부터 물린다.

⑨ 음복(飮福) : 【음복(飮福)이란 제사(祭祀)를 마치고 제사에 올린 술이나 다른 제물(祭物)을 먹는 의식이다.】

조상(祖上)께서 주시는 복된 음식으로 생각하고 가족이 모여서 먹으며 친족과 이웃에 나누어 주기도 한다.

先祖(선조)事跡(사적) 28

9世(세) 諸先祖(제선조) 探究(탐구) Ⅷ - ②

忠烈公(충렬공) 諱(휘) 致寬(치관) 神道碑銘(신도비명)

四佳(사가) 徐居正(서거정) 撰(찬)
忍堂(인당) 具滋東(구자동) 譯(역)

(종보 제176호 4면에 이어) 이에 앞서 吏曹(이조)判書(판서)들은 의례적으로 官職(관직)을 任用(임용)할 때에 자기 任意(임의)로 안건을 처리하고 아래 官員(관원)들과는 상의를 하지 않아서 叅判(참판)以下(이하)는 袖手傍觀(수수방관)만 하였는데 公(공)은 이것을 분통히 여기고 그 폐단을 바로잡는데 노력하였다. 그래서 公(공)은 여러 官員(관원)을 任免(임면)할 때에 同曹(동조) 官員(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결하고 비록 미관말직이라도 혼자서 처결하는 법이 없었고 사사로운 은혜로써 친척과 친구들을 감싸주는 일이 없으며 또 남의 功(공)과 재능을 질투하는 小人輩(소인배)는 승진의 대상이 되더라도 裁決(재결)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淘汰(도태)한 冗官(용관)(중요하지 아니한 벼슬)이 수십 員(원)이나 되었고 그중에서 高官(고관)貴人(귀인)의 子孫(자손)들이 좋은 벼슬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 밀리게 되었다.

나 居正(거정)이 그때 缺員(결원)에 보직되어 叅議(참의)가 되었는데 하루는 마침술이 취하여 政房(정방)(政務(정무)를 집행하던 곳)에서 졸고 있었는데 公(공)이 나에게 소리 높여 꾸짖으며 이르기를 「徐(서) 叅議(참의)는 내가 사람을 選用(선용)할 때 내 생각대로 恣行(자행)하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줄 아는가? 만일 後日(후일) 채용에 失手(실수)가 있으면 叅議(참의) 自身(자신)은 집에 있어서 몰랐다고 하겠는가」하므로 나 居正(거정)은 부끄러워 사죄를 하였다. 한번은 公(공)이 이름을 아는 名士(명사) 한 사람을 臺官(대관)(司憲府(사헌부)의 大司憲(대사헌) 이하 6품까지의 벼슬아치)으로 任用(임용)하고자 할 때 이를 반박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滑稽(골계)(익살, 해학)를 좋아하니 不可(불가)하다」고 하므로 公(공)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漢(한)武帝(무제)가 어찌서 東方朔(동방삭)을 채용하였는가? 사람이 재질이 있으면 滑稽(골계) 따위가 무슨 흠이 되리오?」하고 마침내 채용하였다. 또 한번은 한 文士(문사)가 外職(외직)으로 고을의 交關(교관)職(직)에 있는 지 10년이 되도록 벼슬을 옮기지 못했으므로 縣監(현감)으로 채용하려 할 때 이를 반박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迂闊(우환)(世上(세상) 사정에 어두움)하니 불가하다」고 하므로 公(공)은 말하기를 「10년이면 江山(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남의 밑에서 굶혀만 지내게 하느냐」하며 드디어 縣監(현감)에 채용하여 과연 治蹟(치적)의 효과를 보았으니 이는 公(공)이 사람을 任免(임면)하는 것을 한결같이

至公(지공)無私(무사)로 一貫(일관)하였으므로 비록 公(공)을 싫어하는 사람도 마침내 公(공)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 나라가 浪甫兒罕(낭보아한)이 반역을 한 이래로 北方(북방) 변경이 불안하므로 世祖(세조)는 公(공)을 咸吉道(함길도)都體察使(도체찰사)로 임명하여 변경을 진정시킨 뒤에 公(공)의 품계를 높여서 崇政大夫(송정대부)로 陞差(승차)시켰다. 壬午(임오)(世祖(세조)7 · 1462)年(년) 2月(월)에 右贊成(우찬성), 知成均館事(지성균관사) 世子貳師(세자이사)로 승진하고 이해 7월에 輔國崇祿大夫(보국송록대부)로 拔擢(발탁)하여 綾城(능성)府院君(부원군)에 봉했으며 8월에 議政府(의정부)右議政(우의정)에 승진하고 다시 領議政(영의정)으로 옮겨서 領五衛都摠府(영오위도총부) 都摠管(도총관)을 겸직시켰다. 公(공)은 議政府(의정부)에 있으면서 施政(시정)이 寬大(관대)하고 簡易(간이)함을 숭상하고 更張(경장)을 좋아하지 않으니 참다운 재상의 體道(체도)를 구비했다. 그러나 公(공)은 누차 직위가 너무 盛滿(성만)함을 주청하여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丙戌(병술)(世祖(세조)11 · 1466)年(년)에는 府院君(부원군)의 爵號(작호)만 갖고 있었다.

丁亥(정해)(世祖(세조)12 · 1467)年(년)에 明(명)나라 皇帝(황제)가 野人(야인)을 토벌할 때 우리나라의 軍兵(군병)을 징발시키며 世祖(세조)가 여러 장수를 파견하여 婆猪江(파저강)의 李滿住(이만주) 소굴을 엄습하여 고생 끝에 殄滅(진멸)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서 변경을 엿보고 노략질을 일삼았다. 世祖(세조)는 公(공)을 명하여 鎮西(진서)大將軍(대장군)을 삼고 左右(좌우)諸臣(제신)에게 말하기를 「綾城(능성)府院君(부원군)은 나의 萬里長城(만리장성)이라」고 하니 이때에 公(공)이 세 번째 節鉞(절월)을 잡고 出將入相(출장입상)을 하였으므로 世祖(세조)의 信任(신임)이 더욱 두터웠다.

戊子(무자)(世祖(세조)13 · 1468)年(년)에 睿宗(예종)이 卽位(즉위)하여 公(공)에게 戶曹(호조)判書(판서)를 兼職(겸직)시켰으며 그때 나 居正(거정)도 부끄럽게도 判書(판서)가 되었는데 그 해에 바로 흉년이 심하여 八道(팔도)百姓(백성)이 飢饉(기근)이 심하므로 救濟策(구제책)이 빈번하게 論議(논의)되었다. 그래서 조정에서 그 책임을 아무 經綸(경륜)도 없는 나에게 맡기므로 눈앞이 캄캄하여 조처할 바를 몰랐다가 公(공)의 힘을 빌어 대책을 세워서 백성들을 기근에서 벗어나 生活(생활)할 수 있게 하였다. 또 京畿(경기)地方(지방)의 貢賦(공부)가 他道(타도)에 비하여 倍(배)나 많았

고 더욱이 그들의 근심거리는 夏節(하절)에는 靑草(청초), 冬節(동절)에는 乾草(건초)를 京司(경사)(京各司(경각사)의 준말, 서울에 있던 관아의 총칭)에 바치는 등 그 부담이 많았다. 그리고 地方官(지방관)인 守令(수령)들도 백성들의 살림형편을 보는 눈이 어둡고 세금을 징수하는 衡平(형평)이 고르지 못해서 富豪(부호)들은 교활한 방법으로 脫稅(탈세)를 하고 貧弱(빈약)한 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公(공)은 이의 모순점을 조정에 건의하여 田結(전결)(는 밭의 租稅(조세)의 數(수)를 참작하여 그 斤兩(근량)을 定(정)하되 田租(전조)의 條例(조례)를 따랐다. 또 항상 바치는 貢物(공물) 수십 件(건)을 감해 주게 하여 백성들은 公(공)의 은덕을 매우 고맙게 여겼다.

己丑(기축)(睿宗(예종)元(원) · 1469)年(년)에 睿宗(예종)이 승하하고 今上(금상)(成宗(성종))이 大統(대통)을 이어 寶位(보위)에 오르시어 훈공을 책정할 때 公(공)에게 純誠(순성)明亮(명량)經濟(경제)佐理(좌리)功臣(공신)의 勳號(훈호)를 내리고 經筵(경연)을 열어서 公(공)을 領經筵事(영경연사) 겸 吏曹(이조)判書(판서)를 시키고 항상 前朝(전조)의 舊臣(구신)으로 敬重(경중)하게 禮遇(예우)하였다. 庚寅(경인)(成宗(성종)元(원) · 1470)年(년) 9월에 公(공)이 病(병)으로 인하여 私第(사제)에서 別世(별세)하니 향년이 65세였다. 成宗(성종)은 訃音(부음)을 듣고 슬퍼한 나머지 3일 동안 朝市(조시)(朝廷(조정)事(사)와 市井(시정)의 일)을 撤罷(철파)하였고 太常寺(태상시)에서 忠烈(충렬)이란 諡號(시호)를 내렸으며 11월 甲申(갑신)日(일)에 廣州(광주) 餘美里(여미리)(현재 悅美里(열미리)) 先考(선고)塋下(영하) 亥坐(해좌) 판에 안장하였다.

公(공)은 天性(천성)이 忠直(충직)하고 마음가짐이 強毅(강의)하며 경륜과 지모를 발휘하여 國政(국정)을 보필했고 모든 일을 조처함이 明白(명백)正大(정대)하여 사람들이 離間(이간)하는 말을 입에 담지 못했다. 또 公(공)은平生(평생)을 고달프게 國事(국사)에만 집념하고 自身(자신) 개인 사정에 대하여는 一言半句(일언반구)도 없었으며 家庭生活(가정생활)이 清白(청백)하고 時代(시대) 弊俗(폐속)에 관련되는 節禮(절례) 따위를 行(행)하지 않았고 극히 貴(귀)하고 총애 받는 몸이면서도 自身(자신)

保養(보양)하기를 寒微(한미)한 선비생활과 같이 하였으며 그리고 화려하고 사치하는 일을 싫어했고 公(공)이 거쳐하는 방에는 조촐한 圖書(도서)뿐이었다고 한다. 公(공)이 別世(별세)할 때 집이 가난하여 喪事(상사)凡節(범절)을 갖추 수 없으므로 상감이 특별히 쌀과 콩을 하사하여 겨우 장사를 치를 수 있었다. 아아! 공의 清雅(청아)한 德行(덕행)과 고상한 節操(절조) 그리고 장한 공훈과 성대한 업적은 당시에 그 상대될 만한 사람이 드물며 史冊(사책)을 구해 보더라도 그 몇 사람이나 있으리오?

公(공)의 配位(배위)는 淸州(청주)李氏(이씨)로서 貞淑(정숙)한 婦德(부덕)과 아름다운 행실이 있었고 貞敬夫人(정경부인)에 封(봉)했으니 司正(사정)벼슬을 한 仲扶(중부)의 따님이다. 公(공)이 1남 4녀를 두었는데 아들 慶(경)은 早卒(조졸)하고 長女(장녀)는 訓鍊院正(훈원정) 朴輝(박휘)에게 출가했으며 다음은 廣興倉守(광흥창수) 權長孫(권장손)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敦寧府(돈녕부) 僉正(첨정) 趙選(조선)에게 출가하여 公(공)보다 먼저 죽고 다음은 漣川(연천)縣監(현감) 柳益厚(류익후)에게 출가했다. 慶(경)이 判官(판관) 南原人(남원인) 楊淵(양연)의 딸과 결혼하여 1남 長孫(장손)을 두어 지금 護軍(호군)으로 있고 訓鍊院正(훈원정)이 4남을 두니 長男(장남)은 永昌(영창)이요 次男(차남)은 永文(영문)이며 其外(기외)는 아직 어리고 廣興倉守(광흥창수)가 3남 4녀를 두니 모두 어리고 僉正(첨정)이 1남을 두니 壽堅(수건)이요 縣監(현감)이 2남 2녀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護軍(호군)이 贊成(찬성) 交河人(교하인) 盧思愼(노사신)의 딸과 결혼하여 1녀를 두었고 永昌(영창)은 順天(순천)郡守(군수) 朴永亨(박영형)의 딸과 결혼하고 永文(영문)은 僉知中樞府事(첨지중추부사) 李敦仁(이돈인)의 딸과 결혼하여 몇 명의 자녀를 두었다.

公(공)을 안장한 지 5년 후에 護軍(호군)의 聘丈(빙丈) 盧贊成(노찬성)이 나에게 公(공)의 碑銘(비명)을 청할 때 나 居正(거정)이 公(공)을 陪遊(배유)한 지 이미 오래되고 두 번이나 部下(부하) 官僚(관료)로서 곁에 있었으므로 公(공)의 行績(행적)을 누구보다도 상세히 알고 있으니 어찌 碑銘(비명) 짓는 일을 사양할 수 있으리오. 銘(명)을 지어 찬양한다. (다음호에 계속)

족보구입에 대한 당부의 말씀

족보(壬午譜)가 발간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족보가 종인들에게 배포되었습디만, 당시 수단을 제출하면서 예약을 해놓고 찾가지지 않은 족보가 아직까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이사를 기신다거나 장기간 출타 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족보를 모시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짐없이 대중회로 연락하셔서 찾아가시기 바라며, 예약을 하지 않았어도 족보를 모실 종인들께서도 대중회로 연락하시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시·도중회의 중회장님께서는 종인 중에 족보를 모시지 않은 종인을 파악하여 족보를 모실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족보를 모시지 못하면 언제 족보를 발간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능성친목회(綾城親睦會)정기총회 개최 준회(俊會)회장 연임



능성친목회(회장 具俊會)는 지난 1월 9일 신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원 상호간 덕담으로 신년인사를 나눈 후 준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회원들에게 감사

를 표하고 새해에도 더욱더 건강하 시고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회(光會) 총무의 결산보고가 있는 후 임원개선에서 임기를 다한 준회 회장은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다시 회장에 연임되었다. 능성친목회는 1966년 3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회원들 간

의 끈끈한 정으로 꾸준히 모임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능성친목회는 격월로 홀수 달 9일 전후로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건배제창(乾杯齊唱)

며칠 있으면 무자년 설을 맞이하게 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족모임, 종친모임, 직장모임, 동창모임, 친목모임 등 크고 작은 모임이 있게 마련이고 모임에서는 건배사가 오가게 된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를 위하여」, 「건배」등인데 너무 단조롭고 판에 박힌 듯하여 식상한 느낌을 갖는다. 종친모임에서는 「송조-애조」, 「우리는-하나다」, 「우리가-남이가」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2-3년 전부터는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모이는 곳에서 「구구-팔팔」이 많이 사용되는데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자는 뜻으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자는 의미가 있다. 최근 몇몇 모임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당신-멋져」라는 건배사가 있다. 그 뜻인즉 '당당하고 신사답고 멋지게 저주자'는 의미로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부지런히 일하면서 소신 있게 살아가자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 건배사는 모임마다의 성격과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 건배사도 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건배사는 격이 있어야 하고 모임의 상황과 여건에 잘 맞아야 제격이다. 그래서 각 모임의 형편에 따라 적당한 건배사를 골라 쓰는 것도 관촬을 성실히 현재 여러 모임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배사를 나열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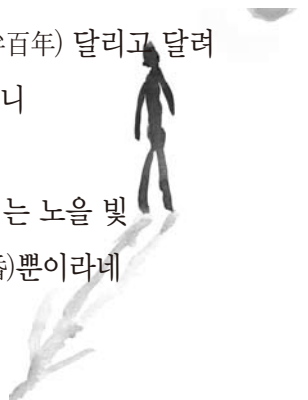
- ◇개나리 : 개(개)급장 떼고 나이는 잊고 리플렉스(Relax or Refresh) 하자는 뜻으로 권위나 위엄을 버리고 위 아래가 하나가 되어 편하게 즐겁게 기분을 전환하자는 의미이다.
- ◇개나발 :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 ◇나가자 : 나라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자신을 위하여
- ◇나이야 가라 :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 뿐 나이가가라 폭포를 연상할 만큼 팔팔하다는 의미이다.
- ◇당나귀 :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하여
- ◇사우나 : 사랑과 우정을 나눕시다.
- ◇사우나 초가집 :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초지일관 집으로 가자 라는 뜻으로 2차 술자리는 자제하고 일찍 귀가 하자 라는 의미
- ◇시미나창 : 시작은 미미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는 성경구절에서 인용
- ◇아사보배 : 아껴주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베풀자
- ◇우행시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위하여
- ◇원더걸스 : 2007년도 한 해를 달군 텔미 열풍의 소녀가수 그룹 이름으로 원하는 만큼, 더도 말고, 걸러서 스스로 마시자 라는 의미이며 과음하지 말고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가자는 취지이다.
- ◇이사우 : 이상은 높게, 사랑은 넓게, 우정은 깊게
- ◇일십백천만 :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좋은 일을 하고, 10번 이상 큰소리로 웃으며, 100자 이상 쓰고, 1000자 이상 읽으며, 1만보 이상 걷자 라는 의미
- ◇진달래 : 진하고 달콤한 내일을 위하여 라는 뜻으로 연인들이 주로 사용한다.

상기 외에도 「됐나?!-됐대」, 「할 수-있다」, 「하면-된다」 등이 있다. (편집인)

내 고향 경포로 가는 길

운송(雲松) 구환우(具環祐, 會)

국경선(國境線) 너머 푸른 하늘 아래
북(北)으로 북(北)으로 낮과 밤 가리지 않고
함경본선(咸鏡本線) 달리는 삼등열차(三等列車)야
지울래야 지울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는
내 고향 경포(景浦)로 가는 길
그리고 멀더냐
마음속으로 헤아리면
한 나절도 되지 않는 길
산넘어 강 건너 반백년(半百年) 달리고 달려
내 청춘 강물에 흘러보내니
이제 남은 것은
서산(西山)을 곱게 물들이는 노을 빛
짙막한 인생황혼(人生黃昏)뿐이라네



(지은이 : 咸鏡南道 洪原郡 景浦面 松嶺里에서 출생한 失鄉民이며 시랑파의 후손으로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만 함경남도중앙도민회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동 정

사법고시 합격



구진미(具珍美, 敎) 종인이 2007년도 제49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 진미 종인은 시랑파의 후손으로 전남 화순군 북면에 있는 아산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희정(熙正, 謨) 종인의 장녀로 2002년 광주 수피아여고와 2006년 경희대학교 법학대학을 각각 수석 졸업했다.

부 음

구자옥(具滋玉) 종인이 지난 12월 26일 향년 90세의 일기로 별세하였다. 고인은 대중회의 감사와 능성친목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 종보구독안내 ●

종보는 종인들이 제작하는 소중한 회보입니다. 지역총회, 파종회, 문중별로 활동내용과 미담 기사 등 제반소식을 대중회 편집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마감은 홀수 달 5일까지입니다. 종보 구독료는 연 1만원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회 종보편집실)

[성금내역]

(2007. 12. 1~12. 31)



具教雲 이사
(경기도중회장)
100만원



具利謨 이사
100만원



具成謨 이사
100만원

정성어린 성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사는 종인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대종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협찬금		전기계	0	순회 대구시 범어동	20,000
교운 이사	1,000,000	당기계	50,000	자만 대구시 감삼동	20,000
이모 이사	1,000,000	합 계	50,000	운회 포항시 죽도동	20,000
성모 이사	1,000,000	연회비		봉림 서초구 서초동	30,000
전기계	23,000,000	찬회 강남구 대치동	50,000	전기계	8,503,513
당기계	3,000,000	전기계	1,150,000	당기계	210,000
합 계	26,000,000	당기계	50,000	합 계	8,713,513
영모재 기와공사 성금		합 계	1,200,000	4세조면성부원군중회 이사부담금	
봉림 서초구 서초동	70,000	종보 구독료		성모 이사	200,000
전기계	29,830,000	본건 대구시 신평동	30,000	교원 이사	200,000
당기계	70,000	자형 청원군 남이면	30,000	전기계	1,300,000
합 계	29,900,000	성회 대구시 도원동	20,000	당기계	400,000
고창관리사 보수 성금		언회 대구시 만촌동	20,000	합 계	1,700,000
태관 구로구 구로동	50,000	기상 대구시 유천동	20,000		

【2007년도 성금 내역 (2007.1.1.~ 2007.12.31.)】

〈이사·감사 협찬금〉		진 대구시 진천동	300,000	특회 부산광역시중회 총무이사	100,000	정서 평창군 약수리	25,000
자선 상임부회장	1,000,000	태만 영천시 화남면	200,000	맹회 부산광역시중회 이사	100,000	자홍 성동구 금호동	30,000
자정 이사(서울특별시중회장)	1,000,000	연영 양평군 개군면	200,000	인수 부산광역시중회 이사	50,000	명서 파주시 장현리	10,000
자신 이사(부산광역시중회장)	1,000,000	연정 중구 광희동	100,000	서울 부산광역시중회 이사	50,000	자우 마포구중회 총무	30,000
화성 이사(인천지구중회장)	1,000,000	재본 화성시 안녕동	100,000	삼만 부산광역시중회 이사	50,000	찬모 안양시 평촌동	30,000
교운 이사(경기도중회장)	1,000,000	본구 여주군 대신면	100,000	차회 부산광역시중회 이사	50,000	정회 남양주시 마석리	50,000
자관 이사(충북도중회장)	1,000,000	자정 여주군중회장	100,000	낙회 부산광역시중회 이사	100,000	본준 광주시 곤지암리	30,000
달회 이사(대전충남중회장)	1,000,000	민상 과천시 중앙동	100,000	재중 부산광역시중회 이사	100,000	교황 은평구 대조동	50,000
희회 이사(전북도중회장)	1,000,000	성서 영양군 일월면	100,000	〈고창관리사 보수 성금〉		철우 동작구 흑석동	10,000
성회 이사(경남중회장)	1,000,000	천회 완주군 비봉면	100,000	태관 구로구 구로동	50,000	강서 이천시 관고동	30,000
연도 이사	2,000,000	영산중중	100,000	〈종보 기금〉		자현 대구시 효목동	30,000
점서 이사	1,000,000	장회 창녕군 부곡면	100,000	도원수와 일동중중	500,000	자문 은평구 진관외동	30,000
대영 이사	1,000,000	명술 진해시 이동	100,000	도연 수원시 인계동	500,000	자영 용산구 갈월동	30,000
준회 이사	1,000,000	자영 진해시중회장	100,000	연도 이사	350,000	자영 서초구 방배동	30,000
일회 이사	1,000,000	봉림 서초구 서초동	70,000	자중 미국 뉴욕 (\$220)	203,513	용문 고양시 장항동	20,000
홍회 이사	1,000,000	관서 남양주시 와부읍	50,000	광회 종보편집인	200,000	성회 당진군 순성면	30,000
익회 이사	1,000,000	인서 인천시 용현동	50,000	창서 고문	100,000	본구 여주시 대신면	50,000
완회 이사	1,000,000	운기 안양시 석수동	50,000	관서 남양주시 와부읍	100,000	자원 송파구 가락본동	20,000
선회 이사	1,000,000	자역 서대문구 홍제동	50,000	창회 구리시 인창동	100,000	정훈 서대문구 홍제동	30,000
창회 이사	1,000,000	창서 논산시 양촌면	50,000	한서 서초구 방배동	100,000	영모 속초시 중앙동	10,000
자백 이사	2,000,000	자근 구로구 구로동	50,000	영회 하남시 신장동	100,000	만회 천안시 풍세면	30,000
종도 이사	1,000,000	본정 순창군 순창읍	50,000	완서 수원시 천천동	100,000	주서 논산시 연무읍	50,000
이모 이사	1,000,000	회석 남양주시 금곡동	30,000	자○ 송파구 신천동	100,000	태회 김제시 김산동	30,000
성모 이사	1,000,000	사회 부산시 화명동	20,000	만회 인천시 강화군	100,000	수북	30,000
준회 감사	1,000,000	정회 인천시 만수동	10,000	〈종보 구독료〉		자길 관악구 봉천동	30,000
〈영모재 기와공사 성금〉		교민 성남시 이매동	10,000	영수 평택시 지제동	10,000	자만 성남시 정자동	10,000
자선 서울특별시중회 고문	10,000,000	영회 당진군 송악면	10,000	성회 대구시 도원동	20,000	자택 양주시 고읍동	10,000
판용 수석부회장	5,000,000	자영 부산광역시중회 고문	100,000	운회 포항시 죽도동	10,000	인회 양주시 광적면	10,000
자정 이사(서울특별시중회장)	4,000,000	정회 부산광역시중회 수석부회장	300,000	기영 대구시 유천동	10,000	자열 의정부시 호원동	30,000
연수 이사(광주전남중회장)	3,000,000	일회 부산광역시중회 부회장	100,000	순회 대구시 범어동	10,000	본홍 용인시 남사면	10,000
자신 이사(부산광역시중회장)	1,000,000	자석 부산광역시중회 부회장	100,000	자만 대구시 감삼동	10,000	일주 담양군 고서면	20,000
화성 이사(인천지구중회장)	1,000,000	재복 부산광역시중회 부회장	50,000	자옥 대구시 대명동	10,000	경회 진주시 미천면	30,000
연도 이사	1,000,000	산회 부산광역시중회 부회장	100,000	점서 동대문중랑구중회장	50,000	오서 보은군 마로면	20,000
자백 이사	300,000	윤회 부산광역시중회 부회장	500,000	중회 평창군 하리	25,000	현모 부산시 남천면	30,000
종도 이사	300,000	자완 부산광역시중회 감사	50,000			언회 대구시 만촌동	10,000
		동민 부산광역시중회 감사	100,000			영철 송파구 가락동	30,000
						한서 남양주시 금곡동	10,000

태관 구로구 구로동	20,000	자옥 고양시 탄현동	30,000	봉회 종로구 혜화동	50,000	자원 부산시 초읍동	30,000
완서 대구시 상동	10,000	정모 강남구 대치동	60,000	민회 보령시 청라면	10,000	흥회 서천군 판교면	20,000
용조 익산시 춘포면	30,000	태 동작구 흑석동	20,000	자원 보령시 주산면	10,000	성회 창녕군 도천면	10,000
지탁 밀양시 내이동	30,000	자운 성남시 금곡동	10,000	자규 보령시 주산면	10,000	판근 창녕군 계성면	10,000
문모 군포시 금정동	50,000	자형 광진구 능동	10,000	자옥 보령시 웅천읍	10,000	장회 청원군 가덕면	30,000
본경 예천군 예천읍	10,000	자옥 동작구 상도동	30,000	찬회 보령시 대천동	10,000	병호 양천구 목동	20,000
문서 부산시 패법동	30,000	자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000	익모 동작구 신대방동	30,000	희권 화순군 화순읍	10,000
형서 당진군 당진읍	10,000	승회 안양시 석수동	10,000	자룡 강서구 등촌동	20,000	자남 하남시 감일동	50,000
선모 거창군 신원면	30,000	자승 예산군 예산읍	30,000	자문 은평구 진관외동	10,000	본익 논산시 강경읍	20,000
철회 보은군 마로면	30,000	회일 거제시 신현읍	30,000	자택 양주시 고읍동	10,000	본웅 양천구 신정동	10,000
본동 수원시 화서동	10,000	자항 동작구 상도동	30,000	자용 화성시 송산면	50,000	선회 여주군 점동면	10,000
민회 보은군 마로면	20,000	본권 관악구 신림동	30,000	자현 서산시 동문동	10,000	종서 여주군 점동면	10,000
본삼 대구시 도원동	10,000	명회 부산시 연지동	10,000	자희 대구시 범어동	30,000	은회 여주군 점동면	10,000
자용 노원구 월계동	20,000	내남 오산시 궏동	30,000	영철 송파구 가락동	30,000	윤회 여주군 점동면	10,000
경준 익산시 남중동	50,000	본익 오산시 오산동	20,000	종각 금천구 독산동	30,000	을회 여주군 점동면	10,000
종도 진해시 여좌동	20,000	정호 경주시 양남면	50,000	본진 안양시 비산동	10,000	봉회 여주군 점동면	10,000
태회 진해시 여좌동	10,000	명회 대구시 비산동	20,000	창모 여주시 소라면	50,000	기서 여주군 점동면	10,000
정민 진해시 여좌동	10,000	창회 예천군 지보면	30,000	○○ 전주시 효자동	30,000	동회 여주군 점동면	10,000
연곤 관악구 신림동	50,000	판석 영광군 군서면	20,000	치근 거제시 능포동	50,000	성회 여주군 점동면	10,000
정규 김해시 동상동	10,000	정모 양천구 목동	50,000	자억 서대문구 홍제동	50,000	범서 여주군 점동면	10,000
자환 연기군 남면	30,000	완회 여주군 여주읍	30,000	태회 김제시 검산동	20,000	성모 광주시 실촌읍	30,000
울서 진주시 집현면	30,000	자정 여주군 여주읍	50,000	정숙 순천시 조곡동	30,000	문화 고양시 화정동	10,000
인회 서천군 비인면	50,000	자원 당진군 면천면	10,000	정훈 서대문구 홍제동	20,000	명회 인천시 부평동	50,000
성철 진안군 진안읍	30,000	자훈 당진군 면천면	10,000	자선 태안군 태안읍	30,000	태회 부산시 양정동	10,000
철서 청원군 오창읍	20,000	탁회 당진군 당진읍	10,000	자영 서초구 방배동	30,000	미회 부산시 개금동	10,000
태형 강화군 불은면	30,000	춘서 울산시 무거동	10,000	홍모 수원시 지동	10,000	봉회 부산시 반여동	10,000
자덕 관악구 봉천동	30,000	석만 울산시 우정동	10,000	종훈 마포구 도화동	10,000	공회 부산시 당리동	10,000
본결 청주시 강서구	30,000	봉회 울산시 복산동	10,000	연영 양평군 개군면	30,000	완회 부산시 우동	10,000
흥회 서천군 판교면	10,000	상출 울산시 우정동	10,000	자목 대구시 도원동	30,000	시서 강동구 고덕동	10,000
창회 경주시 안강읍	10,000	영규 울산시 복산동	10,000	득봉 나주시 진포동	10,000	필서	10,000
자하 영등포구 양평동	30,000	자순 울산시 태화동	10,000	상식 동해시 발한동	20,000	달회 인천시 강화군	30,000
연해 예천군 예천읍	10,000	복기 울산시 복산동	10,000	본국 파주시 조리읍	30,000	본건 대구시 신평동	30,000
성철 함안군 대산면	30,000	자익 울산시 다운동	10,000	제현 화순군 한천면	30,000	자형 청원군 남이면	30,000
교찬 대구시 봉산동	20,000	현교 울산시 신정동	10,000	송회 의왕시 오전동	20,000	성회 대구시 도원동	20,000
원극 울릉군 울릉읍	20,000	운기 울산시 양정동	10,000	자순 과천시 중앙동	50,000	언회 대구시 만촌동	20,000
진호 울진군 울진읍	20,000	본완 울산시 우정동	10,000	자국 용산구 서빙고동	10,000	기상 대구시 유천동	20,000
본설 성북구 장위동	30,000	자열 울산시 태화동	10,000	양서 오산시 원동	50,000	순회 대구시 범어동	20,000
본충 용인시 상현동	10,000	자정 울산시 무거동	10,000	연화 양평군 단월면	20,000	자만 대구시 감삼동	20,000
금서 성남시 정자동	10,000	진양 울산시 달동	10,000	충회 강서구 등촌동	20,000	윤회 포항시 죽도동	20,000
남조 당진군 송산면	20,000	본석 울산시 옥동	10,000	창회 이사	50,000	봉림 서초구 서초동	30,000
방회 진해시 이동	30,000	성회 보은군 보은읍	20,000	관회 광주시 용봉동	20,000		
자영 공주시 정안면	10,000	봉서 보은군 산외면	20,000	수본 대구시 진천동	20,000		
덕회 관악구 봉천동	30,000	한서 보은군 산외면	20,000	종도 진해시 여좌동	50,000	〈연회비〉	
정회 부산시 부곡동	10,000	민서 보은군 산외면	20,000	태회 진해시 여좌동	10,000	자관 마포구 상암동	20,000
자환 김천시 부곡동	10,000	연간 보은군 산외면	20,000	정민 진해시 여좌동	10,000	정배 인천시 용현동	20,000
자화 중구 북창동	50,000	자항 노원구 하계동	30,000	원회 부산시 청룡동	10,000	웅서 안양시 안양동	30,000
윤회 서초구 방배동	30,000	연학 동대문구 휘경동	10,000	자상 서산시 동문동	10,000	자옥 파주시 금촌동	30,000
송회 의왕시 오전동	30,000	홍모 마포구 상암동	10,000	경란 수원시 영통동	20,000	자옥 성동구 성수동	20,000
연암 수원시 매탄동	10,000	정회 부천시 중동	10,000	자현 경산시 백천동	10,000	본능 강남구 삼성동	100,000
형회 고양시 성사동	30,000	자옥 수원시 금곡동	50,000	본정 대전시 정림동	50,000	영철 송파구 가락동	20,000
선곤 강남구 도곡동	30,000	자승 당진군 송악면	30,000	자덕 관악구 봉천동	30,000	철회 보은군 마로면	30,000
환우 여주시 여서동	30,000	시우 옥천군 청산면	20,000	자경 동대문구 청량리동	50,000	석태 부산시 암남동	20,000
제성 관악구 봉천동	50,000	연하 여주시 광무동	20,000	단서 성북구 장위동	20,000	본정 순창군 순창읍	150,000
자춘 정선군 남면	50,000	달서 창녕군 창녕읍	30,000	송림 광명시 하안동	10,000	성서 인천시 간석동	10,000
정웅 속초시 중앙동	30,000	본혁 강남구 압구정동	50,000	희택 울산시 태화동	30,000	송리 광명시 하안동	10,000
윤기 안양시 석수동	30,000	세모 송파구 가락본동	50,000	금서 성남시 정자동	10,000	명회 인천시 부평동	50,000
본찬 부산시 봉래동	20,000	부림 광양시 다압면	50,000	지탁 밀양시 내이동	10,000	자철 창원시 대방동	20,000
광회 대구시 성당동	10,000	본학 도봉구 방학동	30,000	환우 여주시 여서동	10,000	순조 장수군 산서면	30,000
민식 수원시 우만동	10,000	재본 화성시 안녕동	50,000	자용 대전시 월평동	10,000	자용 고양시 중산동	30,000
본송 수원시 정자동	10,000	박찬영 평택시 진위면	10,000	효선 전주시 서신동	30,000	윤기 안양시 석수동	50,000
길서 파주시 장현리	20,000	시호 창녕군 영산면	10,000	인회 부산시 만덕동	30,000	자원 여주시 봉강동	20,000
경회 강서구 화곡동	10,000	세회 양천구 신월동	10,000	연근 광주시 실촌읍	10,000	제는 동작구 흑석동	20,000
						본형 노원구 월계동	20,000

회용 중구 신당동	30,000	대전충남중회	100,000	〈향사 특찬(고창)〉		완회 이사	300,000
자운 고양시 대화동	30,000	자진 노원구 월계동	100,000	대전충남중회	100,000	창회 이사	200,000
교민 성남시 이매동	10,000	별좌공중중	200,000	당진신암중중	100,000	성회 이사	200,000
일회 서초구 잠원동	30,000	자민 마포구 성산동	50,000	판사파중중	100,000	성모 이사	200,000
태회 강동구 명일동	30,000	판사파중중	100,000	부산시중회	50,000	교원 이사	200,000
연하 여수시 광무동	20,000	당진군 정미대호지중회	50,000	서무태중회	100,000	〈4세조면성부원군중회 운영 특찬〉	
본동 수원시 화서동	20,000	보령시중회	50,000	여주군중회	100,000	정서 평창군 평창읍	100,000
중회 중랑구 면목동	20,000	당진신암중중	100,000	고성군중회	100,000	〈4세조면성부원군중회 향사 특찬(당진)〉	
갑회 용산구 이태원동	20,000	호양공중중	100,000	강화중회	100,000	여주군중회	100,000
본결 안양시 갈산동	100,000	경남중회	50,000	인천지구중회	200,000	성회 경남중회장	100,000
철우 동작구 흑석동	10,000	서무태중회	100,000	양서 고창군 대산면	100,000	관서 남양주시 와부읍	50,000
연찬 영등포구 여의도동	50,000	봉계중회	100,000	전북도중회	50,000	별좌공중중	200,000
자용 고양시 중산동	30,000	본정 순창군 순창읍	50,000	광주시중회	300,000	보은관기중회	100,000
성모 광주시 실촌읍	30,000	와부중회	200,000	직장공중중	100,000	완회 보령시중회장	50,000
자용 동대문구 이문동	20,000	여주군중회	100,000	별좌공중중	200,000	판사파중중	100,000
찬회 강남구 대치동	50,000	회향친목회	100,000	중서 광주시 실촌읍	30,000	직장공중중	100,000
〈향사 특찬(능주)〉		서대문은평구중회	100,000	본행 당진군중회장	100,000	회회 전북도중회장	50,000
진 대구시 감삼동	100,000	취서 강동송파구중회장	100,000	도정공중중	100,000	본행 당진군중회장	100,000
자선 서울시중회 고문	300,000	본행 당진군중회장	100,000	도원수공파중회	200,000	탁회 당진읍중회장	100,000
직장공중중	100,000	도정공중중	100,000	〈4세조면성부원군중회 이사부담금〉		도정공중중	100,000
부산시중회	50,000	서울시중회	100,000	홍회 이사	200,000	도원수공파중회	200,000
자은 대전시중회장	100,000	강서양천구중회	100,000	익회 이사	200,000		
울산친목회	200,000	도원수공파중회	200,000	준회 이사	200,000		

보학교실⑦

족보상 용어를 통해본 사회상

오재일(고려족보문화원장)

11) 수학(受學)

서당에서 기본 학습을 마치면 글이 많은 선생을 찾아가는데 요즘의 명문학교를 찾는 이치와 같다. 유명한 선생의 제자가 되는 것도 족보에 올려 ○○문하(門下) 또는 ○○연원(淵源)이라 쓰고 교류(交流)관계까지 쓴다. 학통을 이어받아 후에 봉당의 근원이 되기도 하였다.

12) 관직(官職)

과거에 도전하여 초시에 합격하면 ○초시라 부르며 향해(鄉解)라 하나 족보에는 대개 생략한다. 소과에 최종 합격하면 입격(入格)이라 하고 대과에 최종 합격한 것을 급제(及第)라 하였다. 여기서부터 족보에 오르고 최종 관직으로 표기되는데 조정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기록하고 있다. 삼품(三品)인 사람이 이품(二品) 관직을 맡으면 관직(官職) 앞에 수(守)자를 써주고 그 반대이면 행(行)이라 쓴다. 간혹 명예(名譽) 품계(品階)만 있는 경우는 간단히 품계만 알 수 있는 앞 글자만 써준다. <예 : 통정대부(通政大夫)는 통정(通政)만, 통덕랑(通德郎)은 통덕(通德) 등으로 표기> 이런 명예 품계는 조선 후기에 납속(納粟)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웬만한 부자나 신분 상승의 욕구에 찬 사람에게는 일반화되다시피 하였다. 공명첩(空名帖)이라 하여 지방장관에 의해서 주문되어 각 관아로 보내면 부자는 명예관직을 사는 식이었다. 이것이 족보에 버젓이 오르기도 하였다. 세속화의 첩경이 되었다. 명문가의 자제들 중에서는 과거를 통하지 않고서도 출사(出仕)하는데 그들을 음관(蔭官) 또는 남행관(南行官)이라 한다. 승진에는 한계가 있음으로 대부분은 과거에 도전을 하여 고위직으로 진출을 꾀하였다.

13) 족보상에서 제외된 관직

잡과(雜科) 합격도 입격(入格)이라 하는데 중인가(中人家)로 도외시되어서 중인(中人) 계통(系統)은 반가(班家)의 족보에서 제외되었다. 주로 서얼(庶孽) 출신(出身)이 많았고 일종의 기능직(機能職)에 불과했으므로 양반과 어울려 시(詩)를 짓는다든가 한 자리에 어울릴 수가 없어서 반가(班家)의 족보에도 철저히 외면되었다. 나리, 당상(堂上) 이상의 영감(令監), 대감(大監) 등으로 불리는 벼슬아치는 역적에 들지 않는 한 족보에 화려한 이력을 쓰고, 역관(譯官), 율관(律官), 의관(醫官), 雲(덧말:운)운관(雲官), 산관(算官) 등의 중인가는 따로 중인가 족보를 만들어 관직을 꼼꼼히 적었으며, 그 외 잡직(雜職)에 종사한 사람들의 관직은 역시 족보에 오르지 않았다. 이는 지방 관아의 향리(鄉吏)인 구실아치 역시 마찬가지였고 서북의 토관직(土官職) 역시 족보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근래에도 면장(面長)을 지냈을지라도 ‘열심히 일하여 인근 방면에 모범이 되었다’ 등의 말로써나 대체하고 면장이란 문구는 안 썼다.

맺는 말

족보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인류가 살아온 터에는 남아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느 민족보다도 방대한 양의 보첩이 전하고 있는 것이다. 족보를 통해서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배우기도 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는 만큼 족보의 원래 취지에 맞게 우리 스스로가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시대도 바뀌고 변화된 사조에서 이름 있는 조상의 자손은 그 자존을 지키고 오염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며, 대가 짧은 집안이라도 투탁된 점이 없이 나름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 족보문화가 형성될 때 이 땅에 건실한 족보문화가 대물림을 할 것이다. 더구나 남북이 갈린 시점에서 족보 쪽에서 바라보는 애달픈 실상은 같은 혈손끼리 오순도순 지낼 지혜를 짜낼 때 진정한 씨족 관념의 뜻도 되살아날 것이다.

증 지광상인(贈 智光上人)

라말(羅末) 최치원(崔致遠)

雲畔構精廬 安禪四紀餘
운 반 구 정 노 안 선 사 기 여

구름 머무르는 가에 절을 짓고
참선에 든 지 근 50년

筇無出山步 筆絕入京書
공 무 출 산 보 필 절 입 경 서

지팡이로 산을 나와 본 적 없고 붓 들어
서울로 들어갈 편지 써 본 일 없네.

竹架泉聲緊 松櫪日影疎
죽 가 천 성 긴 송 령 일 영 소

대나무 흐름으로 샘물소리 끊이지 않고
솔 나간엔 해 그림자 성기네.

境高吟不盡 瞑目惡眞如
경 고 음 부 진 명 목 오 진 여

지경이 높다보니 읊조림을 멈추고
눈을 감고 참됨부터 깨우쳤네.